

테헤란밸리의 기적을 꿈꾸면서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세기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시련을 발판으로 새천년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면서 내일을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정보 통신 업계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일부 벤처 기업가들의 빼돌려진 행각이 결국은 전체 벤처 업계의 심각한 자금난을 야기하는 도화선이 되었으며,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진 미래 가치 때문에 느닷없는 거품론에 휩싸이면서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보 통신 업계의 전반적인 침체로 확대포장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소수의 벤처 기업이 벌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나머지 성실한 대다수의 정보 통신 업계가 함께 매도당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나마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섬세한 재능이 어우러진

정보 통신 산업의 발전때문이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일구어놓은 수많은 땀방울과 값진 결실들이 하루아침에 몇몇 문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정보 통신 산업은 없어서는 안 될, 아니 존재의 유무 가치를 논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보 통신 산업은 국가 사회의 기반 구조로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척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금융·운수·유통 등 서비스 산업이나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임과 동시에 자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제2의 IMF를 우려하는 경제 침체기에 있어서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일구어놓은 선진화된 정보 통신 산업일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 정보화 시대의 본격적인 전개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정보 통신 기술은 기업 뿐만 아니라 가정, 교육, 금융, 방송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일대 변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보 통신 산업은 확실한 시너지(synergy) 효과를 창출할 절대절명의 대안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성공 신화를 안겨 줄 수 있는 희망입니다. 새로운 기대와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확실하게 설계하여 희망찬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한강의 기적이 아닌 테헤란밸리의 기적을 꿈꾸면서, 새해에는 정보 통신 업계가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方 相 勳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새로운 세기를 준비합시다

20세기의 대미를 장식한 '인터넷 열풍'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공을 초월하는 정보화시대를 열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이를 전달하는 것이 경제활동의 핵심이 될 것이다.

굴뚝산업(전통 제조업)이 지난 30여년간 한국경제의 강력한 성장엔진으로서 역할을 다해 우리를 선진국의 문턱까지 이끌어 왔다. 이제부터는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는 엔진 외에 고부가가치 분야인 지식정보산업이란 또 하나의 성장엔진을 추가해 빠른 속도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야 한다.

우리는 지식정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물적, 정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선진국의 어느 나라보다 공급률이 높은 초고속통신망,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터넷 보급률, 국민의 절반이 갖고 있는 무선단말기 등 물적인 인프라는 물론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 높은 교육열, 빠른 것을 선호하고 느린 것을 혐오하는 국민성 등 정신적 인프라를 함께 갖추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의 근간은 쌍방향 미디어인 인터넷이고, 인터넷의 핵심은 빛의 속도로 전세계를 돌아다니는 디지털 콘텐츠이다. 질 높은 콘텐츠가 인터넷을 활성화시키고, 인터넷의 활성화가 다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선순환이 지속되어야 지식정보강국을 만들 수 있다.

새 천년 첫 해는 벤처기업인들에게는 그리 밝은 기억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벤처는 연초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대체세력이란 선망의 대상에서 하반기엔 청산되어야 할 부실을 안은 또 하나의 구태로 전락했다.

연초의 짧은 영광이 내부적인 경쟁력에 의해 기인했다기 보다는 세계적인 조류와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금융자본의 힘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이제부터 만들어갈 영광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해 존재기반이 흔들리는 나약한 경쟁력을 갖고는 어떠한 비즈니스도 굳건히 설 수 없다. 대미, 대일의 의존적 구조에 기인하는 우리 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뼈가 사무치도록 경험했으니 정보화를 근간으로 이제부터 펼쳐갈 21세기는 지금까지와 분명히 달라야 한다.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차별화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면 물류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대규모의 투자나 별다른 노력 없이도 단숨에 세계시장을 제패할 수 있다.

20세기가 공학기술에 기반을 둔 산업화의 시대였다면 21세기의 100년은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정보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정보기술이란 고속도로 위를 달릴 디지털 콘텐츠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될 것이란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터넷의 특성에 적합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에 몰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할 때, 콘텐츠 비즈니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펼쳐질 지식정보사회의 견인차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21세기는 디지털 콘텐츠의 시대이다.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자!

이상원 퓨처테크 사장

다시 첫걸음부터

환희와 희망 속에 맞이했던 새 천년의 첫해도 벌써 세월이라는 흐름 속에서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새 천년의 또 다른 해를 맞는 이 즈음 우리 경제환경은 불안감에 팽배해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강행과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 정책의 잦은 혼선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불안정 요소들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실질적인 주체이면서도 오히려 불안에 지쳐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의욕보다 불안감이 앞섭니다. 급변하는 지식산업화, 디지털화, 세계화 추세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는 발빠른 적응을 요구하고, 적응은 경쟁을 부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경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걸음 한걸음 음미하는 여행과 같은 것이죠. 일은 잘못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 가족과 건강, 친구, 나라의 존재가 잘못되면 깨어진 유리잔처럼 다시는 예전처럼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난 2000년에도 이런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다들 21세기의 화두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 디지털화, 지식기반의 시대라고들 했습니다. 절대적 희망인 것처럼, 그것은 상상의 희망일 뿐 우리가 아는 희망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희망은 아주 작은 희망이며, 사실 인생의 화두는 늘 희망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는 것, 그것은 일종의 희망 릴레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움, 새로움.... 온갖 새로운 편리함과 새로운 서비스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새것들의 목록을 보고 있으면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새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옛 생각과 낫익은 즐거움들, 그리고 남을 위로하는 습관을 그리워하는 것이 결코 과거에 대한 향수만은 아닌 그것은 연속성입니다. 삶은 온갖 문제와 함께 경이로움 속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는 것은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행동이며, 저는 그런 희망을 늘 꿈꿉니다.

실제로 '부자나라' 들의 생활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부(富)를 창조하는 능력은 부자나라 사람들의 독점물일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길을 찾으려는 결의에 가득 차 있음을 생각하면 앞으로 이 시대의 변화는 얼마나 더 치열한 상황이 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나는 깨닫는다.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이 내게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한때 나는 어리석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으며,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다. 나는 실패를 거듭했으며, 어떤 때는 너무 오래 망설이다가 바람의 방향을 잘못 탄 거미처럼 엉뚱한 쪽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제 나는 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로 나를 데려오기 위한 필연적인 단계였음을....'

마르타 스목의 詩처럼, 우리가 지나온 그 길들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후회는 없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안고 다시 시작하자!!

(주)클릭큐 대표이사 신재균